

간호사로서 책임 다하기





간호사의 면허와 임무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2조).

간호사의 자격 조건

-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 복지 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

-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따라서 **간호학생이 실습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는 간호행위는 적법하다.**



간호사의 면허와 임무

-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료법 제2조)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의료법시행령 제2조)은 보건진료원으로서의 보건활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모자보건법 제2조 제9호), 결핵 관리요원으로서의 보건활동(결핵예방법 제29조), 이 외에도 학교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된다.
- 이러한 **의료법의 간호사의 임무 규정**은 일제강점기 외래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일본식 간호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라는 역할 규정이 1952년국민의료법으로 이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간호학문과 간호실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보조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전문직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 간호사의 간호진단 및 간호처치 등에 대한 권한을 제약하였다.** 또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포괄 규정하고(의료법 제12조) **간호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계의 간호관리법

미국

- 1902년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의 간호법을 시작으로 1923년까지 48개 주에서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이 통과되었다.
- 각 주의 **간호법의 내용을 보면** 간호업무에 대한 정의 및 기준, 교육과 자격, 자격유지에 필요한 사항, 권리와 의무, 행정규제와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의 민형사상 책임의 판단기준이 되는 간호실무표준(standards of care)을 규정하고 있음

영국

- Nurse,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79 (1979 c36)를 제정

프랑스

- 보건법전 Code 5, 6의 제4권 제2편에 **간호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우리나라

- 최근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법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간호사를 위한 단독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간호사의 실무 범위 <미국 일리노이주 간호법>

등록된 전문직 간호사(registered professional nurse, RN)의 실무는 감독기관의 간호표준 준수를 통해 아래 열거된 활동들과 적절히 훈련받은 간호사의 기술 수준을 요하는 기타 활동들을 포함하며, 모든 환자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간호의 전 범위를 의미한다.

- a) 환자의 건강 수준, 상태변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간호사정
- b) 환자 중심의 치료계획 내에서 통합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진단을 내리고,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 설정하고, 간호중재를 결정하고, 간호 전략과 권위 있는 보건의료전문직들로부터 처방되거나 지시된 처치를 실행함
- c) 직접 투약 수행 또는 간호보조자에게 투약 위임
- d) 간호계획 수행을 위한 간호중재의 위임
- e) 직접 간호 또는 위임을 통한 안전 유지와 효과적인 간호 제공
- f) 환자의 옹호
- g) 간호 계획의 효과 및 중재의 반응 평가
- h) 다른 보건의료전문직과의 협력과 의사소통
- i)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 및 적용
- j) 건강교육 및 상담의 제공
- k) 환자안전 지원 시스템, 정책, 절차 등의 개발에 참여

자료: 미국 일리노이주 간호법(PART 1300 NURSE PRACTICE ACT).

법적 책임과 의무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권리



그림 7-1 전문직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

출처: 정면숙외(2012), 간호학개론, p304.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간호사의 권리는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에 의해 보호받는다.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에서 명시된 의무

1) 진료거부 금지 의무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서“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에서“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 또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서“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신청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 한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로부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경우, 운전사의 간질병을 치료한 의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관청에게 신고한 경우)과 정당행위(전염병예방법상 신고) 등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3) 성감별 금지 의무

-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서“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 행위를 도와서는 안되며, 태아의 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기록 의무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서“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간호기록부의 내용으로는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5년이다.

5) 영양방법 지도 의무

-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에서“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영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간호사의 면허와 의무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

1) 주의의무

-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은 주의의무 기준인 표준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예견의무란 신중한 간호사라면 행위 시 유해한 결과 발생

을 예견해야 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결과회피의무**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학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해당 간호행위에 있어서 그 시점의 수준에 달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판례 <서울지법 1996. 9. 18 선고 94가합 101443>

1985년 개인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약 10년간 키우던 중 혈액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식이 아닌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부부에게 친생자가 아닌 다른 신생아를 인도한 것은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사용자인 병원장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는 신생아의 관리, 보호, 인도에 있어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자료: 김기경(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간호사의 면허와 의무

2) 설명 의무

- 설명의무란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 설명의 대상자는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대리인이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병상의 정도, 예후(치료될 가능성), 합병증의 종류, 특히 위험을 동반하거나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및 그 빈도 등이며, 해당 의료행위는 동의권자(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 전단적 의료(unauthorized medical care)란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하기에 앞서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로서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문국진, 1985).
- 예방접종, 강제격리수용, 교통차단, 강제입원 등은 동의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보호자가 없이 구급차에 실려 온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간호사정 및 응급 간호처치를 수행하는 경우에 환자의 위험이 중대하고 시간적으로 급할 뿐 아니라 환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간호행위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승낙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간호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의료인으로서 간호행위는 적법하며 간호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면허와 의무

3) 확인 의무

- 간호사는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는 경우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간호사는 투약업무에서 **환자, 투약시기, 약품의 분량, 부위, 방법, 변질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 및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례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 다 413 >

이질 및 중증 탈수증으로 입원한 소아에게 의사는 간호사에게 포도당 10씨씨에 염화칼륨 0.5 미리이큐빌런트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혈관주사하라는 처방을 하였다. 간호사는 위 주사액을 직접 혈관에 주입하였고 약 2씨씨를 주입할 때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약 1분간에 걸쳐 주사액을 전량 주입하였다. 환자는 그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판례에서 의사는 간호사에게 수칙을 주지시키지 못한 점, 간호사는 약을 혈관에 직접 주입, 주입 속도 어김,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 발견 시 중단 및 의사에게 보고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각각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자료: 김기경(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간호사의 면허와 의무

4) 감시 및 보고 의무

-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증상을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4. 6. 29 선고. 93 가합 7075>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중환자실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혼자 소변을 보러가는 것을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화장실에서 소변보다 넘어져 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을 사망하였다. 법원은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곤하였으나 간호사가 이를 방치하였던 점, 환자의 가족들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하여 병원의 관리책임을 물었다. 이 경우에 환자를 돕거나 감시하고 지도할 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여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업무로 보고 있으며, 간호사의 단독 과실을 인정하였다.

자료: 김기경(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간호사의 법적 책임

- 현행 의료법의 간호 관련 규정은 간호사 및 간호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간호업무의 범위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8항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의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활동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는 간호표준에 따라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이 내린 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 책임을 함께 추궁 받게 된다.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목적이므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손해를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원리가 지배적이다. **형사책임**은 형벌, 즉 범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국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죄형법정주의 원칙).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1) 계약책임

- 오늘날 환자는 단순한 치료행위의 객체가 아니라 자기 신체의 의료적 침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와 대등한 주체로서 평등한 계약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2) 불법행위책임

- 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데, 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때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 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손해는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로 생명, 신체 침해, 사생활, 명예의 침해 등이 이에 속한다. ④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대판 84. 6. 12. 선고, 81다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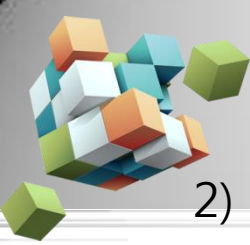


간호사의 법적 책임

2. 형사책임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과실, 즉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경우 보편적인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며 ③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형사책임의 경우 과실이 결과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때에만 인정하므로 민사책임보다 인과관계 해석이 더욱 엄격하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

2)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규정

-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보건의료관련법령 또는 관련 형법(낙태, 허위문서, 사기죄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4. 태아 성 감별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때
 5.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행위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간호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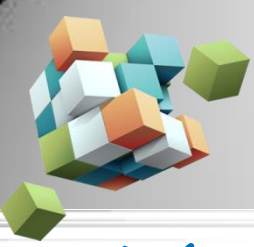
- **과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을 말하며, 과실의 특수한 형태인 **과오**는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오와 과실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상 과실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불법행위(torts)법에서 과실(negligence)과 과오(malpractice)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 **과실**은 불법행위의 하나로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합리적이고 철저한 행위에 실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과오**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특수한 전문직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표준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간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과오를 간호과오**라고 한다(한성숙 등, 2009).
- **간호사고(nursing accident)**는 간호행위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간호사, 직원 등에게 예상외의 원치 않는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간호사고는 간호사가 간호표준을 준수하고 최선을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환자의 식사, 입욕, 배설, 취침 등 생활관리와 이송, 억제 등의 안전관리, 의료기자재 취급, 소독 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호사는 침대의 높이와 난간, 소아과 환자의 환의 크기, 핫팩의 온도, 병실 바닥의 물청소 상태 등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호과오

예시

- **투약**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책임을 인정받고 있다. 간호사는 투약교육을 위해서 환자의 교육 정도를 파악하고 투약교육 후에는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간호사는 투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관찰과 신중한 투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투약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주사행위에서 간호사는 주사로 인한 약물에 대한 과민성 쇼크, 말초신경과 근육의 손상, 감염 등 문제를 예방하고 주의해야 한다.
- **응급의료**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정확하게 검진해야 하고 즉시 기록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치료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간호과오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방안

(1) 개인적 예방방안

-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 간호실무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한다.
-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관련규정, 지침을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을 자세하게 읽는다.

(2) 조직적 예방방안

- 간호실무표준과 지침을 마련한다.
- 간호사의 실무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효과적인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한다.
- 조직적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제도화한다.
- 간호과오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요청한다.



간호과오

-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따라서 간호사는 업무위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의 대상은 간호조무사와 같은 유사자격자와 보조원, 간호실습 학생, 환자 보호자등과 같은 비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 **간호사만이 간호를 위임할 법적이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간호업무의 위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간호사의 부적절한 업무 위임과 불충분한 감독은 직무태만으로서 과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위임 받는 직원의 업무한계를 잘 알고, 그의 능력 범위 내에서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면숙외(2012), 간호학개론: 간호사로서 책임다하기, 서울, 현문사
pp301~319.

김기경(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서울, 현문사